서남해안 연근해 아열대 징후

평균 수온 예년보다 최고 2.1도 상승

붉은바다거북·해마 등 출현 잇따라

서남해안 연근해의 수온이 크게 상승하고 있다. 특히 열대나 아열대에서 서식하는 생물들이 잇따라 발견되는 등 한반도 전 해역에서 아열대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수온 상승=국립수산과학원 해양원격탐사팀은 지난달 여수·경남 통영·제주 등 남해의 연근해 수온을 측정한 결과, 지난달 남해 연안의 평균수온이 25.7도를 기록, 예년(1988~2005년) 평균치보다 0.7도 높았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9도 상승한 것이다.

근해 수온도 지난달 15~21일 평균치가 29.5도로 예년(1991~2005년) 평균치보다 2.1도 올랐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1.2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포·전북 군산·충남 대천 등 서해와 강원 주문진·경북 포항·부산 등 동해 연안의 지난달 평균 수온도 26.3도와 22.6도로 예년 평균치보다 0.1도씩 높았다.

근해 평균 수온은 서해 28.5도, 동해 28.2도로 예년 평균치에 비해 2.3도와 2.5도 높게 나왔다.

수산과학원 관계자는 "수온 상승 요인은 난류의 영향 혹은 육지의 고온 배출수가 흘러들거나 연안 오염이 심화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서식생물 변화=아열대 해역에 서식하는 생물들이 수온상승으로 따뜻해진 남해 연근해에 출현하고 있는 것도 아열대화 징후이다.

신라대 여성과학인력양성센터는 지난 9일 경남 남해군 미조면 연안에서 붉은바다거북과 라스톤입방해파리, 해마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들 생물은 연평균 수온 20도 이상의 열대나 아열대 해역에 서식하는 생물로 해마는 지난 20년간 우리 나라 남해 연안에서 두 번 발견됐으며 라스톤입방해파리는 지난해 한 번 모습을 드러냈다. 붉은바다거북도 우리나라 바다에서 보기 드문 생물이다.

신라대 관계자는 "열대나 아열대 서식 생물들이 남해 연안에서 발견된 것은 이례적인 현상"이라며 "지구 온난화 등에 의한 수온 상승으로 남해군 해역의 아열대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영장으로 살펴 본 학교 납품비리 돈 전달 수법

수업중 교장실서 버젓이 '뒷거래'

79%가 학교내…도덕불감증 심각

'교육현장인 학교가 리베이트 뒷거래(?) 장소'

신설학교 기자재 납품업자와 교직원 간의 검은 뒷거래는 늦은 밤 은밀한 장소가 아닌 대낮 학생들의 수업이 한창인 학교 내에서 이뤄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법원에 신청한 영장내용을 살펴보면 광주 W중 전 교장 김모(55)씨와 전 행정실장 윤모(여·46)씨, S중 전 행정실장 윤모(51)씨 등 3명이 납품업자들로부터 리베이트를 전달받은 곳은 대부분이 교육현장인 학교였다.

이들이 납품업체에서 돈을 건네받은 곳은 모두 24곳. 이 가운데 19곳(79.1%)이 학교 내부였으며, 이 중에서도 16곳이 행정실 또는 교장실이었다. 이외에 ▲학교 계단 ▲학교 주차장 (2회) 등이었다.

이들의 자택 주변에서도 4차례에 걸쳐 수백만 원의 현금이 오갔다.

W중 교장의 경우 개학 직후인 3월 중순께부터 행정실장으로부터 '납품업자가 돈을 건네왔다'는 보고를 받은 뒤 교장실에서 4차례에 걸쳐 950만원을 받았다.

뇌물이 건네진 시간도 퇴근 시간 후 은밀히 이뤄진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수업 중인 오전 10시~오후 4시께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돈은 모두 현금으로 쇼핑 봉투에 담아 전달됐다.

이들이 업체로부터 챙긴 액수는 5천486만원. 내부 고발자의 진술과 경찰 수사, 납품업자 15명의 자백 등을 통해 확인된 공식 범죄액수다. 이 중 556만원은 현금이 아닌 현물로 건네졌다.

S중 행정실장은 컴퓨터와 전자제품 계약체결 대가로 L전자업체로부터 520만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받았다. W중 행정실장도 같은 전자업체로부터 36만원 상당의 비디오를 받아 집에 설치했다.

리베이트 금액이 가장 큰 업체는 교구업체와 전자제품 업체였다. W중은 S교구업체로부터 1천500만원을, S중은 I교구에서 65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았고, 이들 학교에 전자제품을 납품한 업체는 각 학교 행정실장에 700만~720만원씩을 건넸다.

반면 리베이트 금액이 적었던 업체는 인쇄기와 커튼 납품 업체였다. 인쇄기 등을 납품한 H업체는 각 학교에 100만원을, 커튼을 납품한 D업체는 W중에 90만원, S중에 70만원을 각각 건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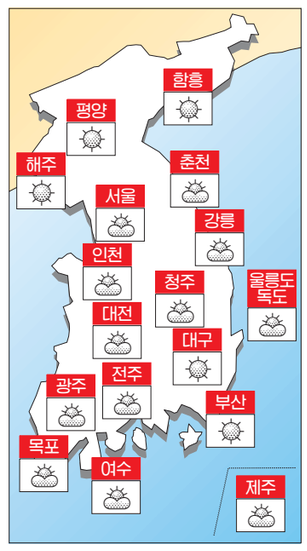
경찰 관계자는 "교장과 행정실장이 미리 짠 뒤 실장은 뇌물을 받아 보고하고, 교장과 이를 나눠 갖는 등 도덕 불감증이 이처럼 심각할 줄 미처 몰랐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선선한 가을 바람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이 끼겠다.

9월 20일 (윤 7월 28일) ◇전국날씨

광 주	구름많음	16~27℃
목 포	구름많음	17~27℃
여 수	구름많음	19~26℃
완 도	구름많음	17~27℃
구 례	구름많음	16~28℃
해 남	구름많음	16~27℃
장 흥	구름많음	16~27℃
고 흥	구름많음	17~27℃
순 천	구름많음	16~28℃
영 광	구름많음	16~27℃
진 도	구름많음	16~27℃
전 주	구름많음	15~27℃
남 원	구름많음	14~27℃
정 읍	구름많음	15~27℃



서해남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0.5~1.0m
먼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0~1.5m
남해서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0.5~1.0m
먼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0~2.0m

목 포 밀물 < 01:10 13:07 썰물 < 06:28 18:30
여 수 밀물 < 08:00 20:20 썰물 < 01:58 13:59

▲해뜸 06:18 ▲해짐 18:33 ▲달뜸 03:58 ▲달짐 17:36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21(목)	22(금)	23(토)	24(일)	25(월)	26(화)
날 씨						
최저/최고	17/26	16/24	16/26	16/27	16/27	16/27

현직 경찰관 음주 뺑소니 20건

지난해~올 7월…전남청 음주교통사고 12명

현직 경찰관의 음주 뺑소니 사고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0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이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 7월 말까지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발생한 교통사고는 120건에 이르고 있다. 이중 뺑소니가 20건에 달했다.

지방청별 음주교통사고는 경기청이 2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청(21명)이 뒤를 이었고 전남청은 12명으로 전국 14개 지방청 가운데 세 번째를 차지했다.

그러나 전남청보다 규모가 크고 인력이 많은 부산과 대구청(각 10명), 충남청(9명), 인천청(8명)은 전남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다.

한편 지난해부터 올 7월 말까지 음주교통사고 경찰관에 대한 징계는 파면 5명, 해임 82명, 정직 31명이었고 2명은 징계가 결정되지 않았다. 이들 경찰관에 의한 피해는 사망이 2명이었으며 중상이 20명, 경상 81명, 부상 7명이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세계 민속예술 다 모였네

조선대 개교 60주년을 기념하는 '2006 외국어대학 세계민속예술제'가 19일 오후 6시30분 광주시민회관에서 열렸다. 조선대 외국어대학 일본어과 학생들이 밤에 찾아오라는 '요사코이마츠리 춤'을 선보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전남 중학생 2008년부터

서울지역 외고·국제고 못 갈 듯

서울교육청, 지역 제한 추진

현재 중학교 2학년생이 고교에 들어가는 2008학년도부터 서울지역 외국어고와 국제고의 모집단위가 현행 전국에서 서울지역으로 제한되는 방안이 신중하게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은 19일 관내 외고 6곳의 학생 모집단위를 전국에서 서울지역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외고 설립 및 운영개선 방안을 원칙적으로 2010학년도부터 적용하되 이보다 2년 빠른 2008학년도에 조기 시행하는 방안도 아울러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지역에는 대원외고(총정원 1천260명)와 한영외고(1천50명), 명덕외고(1천260명), 대일외고(1천260명), 서울외고(1천50명), 이화외고(630명) 등 6곳이 있다.

이 방안이 현실화할 경우 2008학년도 입시부터 서울지역 외고에는 서울지역 거주학생만 지원할 수 있고 다른 시·도 학생은 응시할 수 없게 된다.

2008년 3월 개교할 서울 국제고의 경우 개교 시점부터 지원 자격기준을 서울 지역 거주학생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2008학년도 외고·국제고 입시전형은 내년 10월 실시된다.

한편 광주지역 중학교에서 다른 시·도 외국어고로 진학한 학생은 ▲2004년 6명 ▲2005년 34명 ▲2006년 46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올해 46명 가운데 전남외고(나주)로 간 학생은 전체의 65%인 30명이며 ▲한국외고(경기 용인) 3명 ▲용인외고 및 명지외고(경기 군포) 각 2명 ▲대원외고(서울) 1명 등이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호남선 열차 빨라진다

시속 150㎞→180㎞로

현재 시속 150㎞인 일반 철도의 속도가 180㎞까지 올라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19일 호남선과 경부선 등 간선철도의 선로 설계기준을 최고속도 180~200㎞로 대폭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재 시속 150㎞가량인 일반 열차의 운행속도를 시속 180㎞까지 높이고 내년 이후 도입되는 '틸팅열차'의 운행을 위해 간선철도의 선로 설계기준을 높이는 방안도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간선철도의 속도를 상향키로 한 것은 전국 대도시간 일반열차의 운행시간을 2~3시간 안으로 줄인다는 중장기 목표에 따른 것이다. /서울=임동욱기자 tuim@

▲틸팅(tilting)열차=곡선부를 주행할 때 원심력을 줄이기 위해 곡선부 안쪽으로 약간 기울여 운행하는 열차. 최고 속도가 200㎞에 달한다.

법관 집무실서 외부인 면담 금지

수원지법 내달부터 첫 시행

수원지방법원(신영철 법원장)은 법관이 집무실에서 외부인과 면담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관의 면담에 관한 내규'를 전국 지방법원 중 처음으로 제정,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수원지법은 재판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판사가 집무실에서 변호사·검사 등 소송관계인은 물론, 친척이나 친지 등 외부인과 면담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파산관재인이나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 법관의 직무감독을 받는 자가 법관의 업무지시를 받는 경우, 취재기자가 취재목적으로 공보담당판사를 면담하는 경우, 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허가하는 경우는 예외로 했다.

또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 화해·조정·심문 등 재판절차를 진행할 경우와 재판 절차에 관련된 문제로 변호사·검사 등 소송관계인과 면담할 경우에는 준비절차실·조정실·심문실 등의 공개된 장소에서 하도록 했다. /연합뉴스